

RESEARCH ARTICLE

Modern Understanding of the Lotus Samādhi

Lee, Byungwook

Lecturer, Korea University

법화삼매의 현대적 이해

이병욱

고려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lbw33@hanmail.net

Abstract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Lotus Samādhi and illuminate it from a modern perspective. The Lotus Samādhi consists of 10 items. However, the important part can be said to be the correct insight of reality at the end of the 10 items. This correct insight of reality refers to the idea of emptiness, and from the viewpoint of repentance, it can be said to be great repentance and adorned repentance. However, the 10 items of the Lotus Samādhi are not fixed and unchanging, but can be flexibly approached. Nine items exist for the tenth item, and can be flexibly added or subtracted as needed. When attempting to reconstruct the Lotus Samādhi as practice method for modern peop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ich Nhat Hanh's practice method and Mahasi Vipassana. In Thich Nhat Hanh's practice method,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viewpoint that daily life is practice, and in Mahasi Vipassana, it is necessary to accept that it presents contents that can be easily accepted by anyone. And I approaches the Lotus Samādhi from the viewpoint of meditation. Its contents include ethical practice, mental health, and escape from unconscious dynamics.

Key Words : the correct insight of reality, Thich Nhat Hanh practice method, Mahasi Vipassana, mental health, escape from unconscious dynamics



OPEN ACCESS

Citation : Lee, Byungwook, Modern Understanding of the Lotus Samādhi.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30003>

Received: May 24, 2023

Revised: June 28, 2023

Accepted: June 28, 2023

Copyright: © 2023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이 글에서는 천태의 법화삼매에 대해 검토하고, 법화삼매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법화삼매가 천태사상 속에 포함된 것이므로, 먼저 천태사상의 윤곽을 알아본다.

천태사상은 교판론(敎判論)과 지관(止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교판론은 ‘5시8교’로 알려진 것이고, 지관은 3가지로 나뉜다. 그것은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이다. 점차지관(漸次止觀)은 수행의 단계를 점차적으로 밟아가는 것이고, 부정지관(不定止觀)은 수행의 단계를 모두 밟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비약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에 비해, 원돈지관(圓頓止觀)은 처음부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가 강조한 지관이다.

이 ‘원돈지관’은 천태지의의 저술 『마하지관』에서 주로 설명되는데, 이것은 ‘25방편’, ‘4종류삼매’, ‘십경십승관법’으로 구분된다. ‘25방편’은 원돈지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부정적인 마음은 제거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덕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십경십승관법(十境十乘觀法)은 원돈지관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십경(十境)은 지관의 대상으로 10가지를 제시한 것이고, 십승관법(十乘觀法)은 수행하는 10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4종류 삼매’는 삼매를 외적인 형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화삼매’는 이 ‘4종류 삼매’의 하나인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에 속한다.

한편, 법화삼매에 관한 연구성과는 적지 않은 편이다. 이기운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남악혜사(南岳慧思, 515-577)의 『법화경안락행의』와 천태지의의 『법화삼매참의』, 백제 현광(玄光)의 법화삼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천태지의의 법화삼매에 관해서는 『법화삼매참의』 이외의 문헌에서 등장한 법화삼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이기운, 1996). 나아가 이기운은 중국, 일본, 한국의 법화삼매 실천의 특징적 모습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이기운, 2012: 334-361).

그리고 차차석은 『법화삼매참의』에 나타난 정토사상의 측면에 대해 검토하였다(차차석, 2008: 338-367). 또 차차석은 다른 논문에서 『법화삼매참의』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차차석, 2021: 13-40). 그리고 한지연은 『법화삼매참의』에 나타난 의례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한지연, 2017: 43-62). 또 나지용은 법화삼매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현대인의 여가문화와 결합함과 결사의 부활을 제시한다(나지용, 2014: 104-105).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천태지의의 저술 『법화삼매참의』에 의거해서 법화삼매에 대해 분석하고(2장), 법화삼매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3장).

II. 법화삼매의 내용

먼저 법화삼매의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고, 그다음으로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 가운데 열 번째 항목인 ‘실상(實相)의 정관(正觀)’에 대해 더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법화삼매를 수행하고 얻는 경지에 대해 알아본다.

1. 법화삼매의 전반적 내용

이 법화삼매의 수행법은 천태지의의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화삼매의 전반적 내용의 소개, 법화삼매의 성격, 법화삼매 수행의 방법, 법화삼매 수행의 마음자세로 나누어서 소개한다.

① 먼저 21일 동안 일심으로 정진하는데, 그 방법은 열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량을 장엄하고 깨끗하게 한다[嚴淨道場]. 둘째, 몸을 깨끗하게 하며[淨身], 셋째, 삼보(三寶)를 공양한다[三業供養]. 넷째, 『법화경』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 보살, 하늘사람, 용, 팔부중생과 『법화경』에 의지할 것을 청한다[奉請三寶]. 다섯째, 부처님을 찬탄한다[讚歎三寶]. 여섯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禮佛]. 일곱째,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감각기관인 육근(六根)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 참회하고, 그다음에 수희(隨喜: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에 기뻐하는 것)하고 회향하며, 서원을 세운다[六根懺悔]. 여덟째, 도량을 돌면서 삼보와 보살을 염한다[行道旋遶], 아홉째, 『법화경』을 독송한다[誦法華經]. 열째, 좌선해서 실상(實相)을 관찰한다[思惟一實境界, 좌선해서 실상을 바르게 관조한다]. 이 열 번째 내용이 공관(空觀)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열 가지 항목을 수행해서 하근기 수행자는 계근(戒根)이 청정해지고, 중근기 수행자는 정근(定根)이 청정해지며, 상근기 수행자는 혜근(慧根)이 청정해진다. 또한 각 근기(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마다 다시 상, 중, 하로 구분된다(고익진, 1983: 226-227).

② 이와 같이 법화삼매는 모든 근기에게 수행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근기 가운데에서도 새로 배우는 보살이 깊은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방편의 가르침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마땅히 알아라! 21일 동안을 기일로 정하고,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내용(열 가지 항목)을 [하루에] 여섯 번(六時) 실천하도록 한 것은 새로 배운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배운 보살은] 아직 깊은 삼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먼저 형식적인 것[事法]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고 도를 장애하는 깊은 죄[重障道罪]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법의 즐거움[喜味]을 얻는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46, 955b).¹⁾

③ 그리고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열 가지 항목을 하루에 6번 하고, 모두 21일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위에서 말한 열 가지 항목을 모두 행하고, 그 뒤에는 삼보에게 청하는 것(네번째 항목)은 하지 않고, 나머지 9가지 항목을 행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 수행자는 도량에 처음 들어가서 일시(一時) 가운데 10가지 항목[十法]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육시(六時) 가운데 이 수행법을 사용하지만 다만 [10가지 항목 가운데] 삼보를 소청(召請)하는 것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9가지 항목을 닦는다. 하나하나의 항목을 수행할 때 모두 이 관(觀: 空을 관조하는 것)을 닦고, 육시 가운데 하나하나의 시(時)에 사(事)와 이(理)에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이것을 21일 가운데 일심(一心)으로 정진함이라고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b).²⁾

④ 그리고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자세를 알아본다. 21일 동안 법화삼매를 수행할 때 순간마다 삼보(三寶)를 염하고 마음의 성품이 공(空)하다는 것을 관조해야 하며, 순간이라도 삳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번뇌의 잡된 생각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법화삼매를 닦아야 한다고 천태지의는 말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시 수행자는 21일 동안 참회를 닦을 때, 건거나 앉거나 머물거나 출입하거나, 소변과 대변을 보거나, 청소하고 세탁하며, 움직여서 거동하며, 주변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들거나, [이 모든 행위 속에서] 마음 마음에 삼보(三寶)를 염해야 하고, 마음의 성품이 공(空)하다는 것을 관조해야 한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5욕(五欲)의 세간의 일을 생각해서 삳된 생각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외부의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논의해서도 안 되며, 게으르게 누워서 자서도 안 되며, 웃으면서 대상[色]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여러 대상에 집착해서 착하지 못하고[不善] 무기(無記)의 번뇌의 잡된 생각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그리하여 『법화경』 의] 4안락행 가운데 말한 내용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진다면, 실상(實相)을 벗어 나지 않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참회의 가르침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21일 동안 진실로 일심(一心)으로 정진하는 닦음이라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b).³⁾

2. 실상(實相)의 정관(正觀)

앞에서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열 번째 항목인 실상(實相)의 정관(正觀)에 대해 세 가지 관점, 곧 첫째 공사상의 내용인 ‘4구분별’, 둘째 참회의 관점, 셋째 수행(참회)의 결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① 열 번째 항목인 정관(正觀)은 모든 존재가 공(空)이고 실상(實相)이라고 관조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 생각은 인식기관이 대상을 분별하고 그를 통해서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긴 한 생각에 대해 천태지의는 4구로 분별한다. 현재의 한 마음은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인가? 또는 이 둘(마음을 원인으로 하거나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음)을 합해서 생긴 것인가? 아무런 원인 없이(마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4구분별을 해서 현재의 한 생각이 ‘공’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을 정관(正觀)이라 이름하는가? 보살의 가르침[法]과 같이 번뇌[結使]를 끊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번뇌의 바다에 머물지도 않고 모든 존재[法]가 공(空)이어서 실상(實相)과 같다고 관조하는 것이니 이것을 정관(正觀)이라 이름한다. 어떤 것을 모든 존재가 공(空)하다고 관조하는 것이라 이름하는가? 수행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관조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 생각은 망심(妄心)으로 [각각기관이] 인연한 경계에 의해 생긴 것이다[隨]. 이와 같은

1) “當知 三七日爲期，作如上所說，六時而行者。爲教新學菩薩，未能入深三昧，先以事法，調伏其心，破重障道罪。因此身心清靜，得法喜味。”

2) “復次行人，初入道場，一時之中，當具足修此十法。如是於六時中，悉用是法，唯除召請三寶，於三七日中，修於九法。行一一法時，皆修此觀，六時之中，——時中，不得於事理有關。是名三七日中，一心精進。”

3) “復次行人者，於三七日中，修懺悔時，若行若坐 若住若出入，大小便利，掃灑洗滌，運爲舉動，視胸俯仰，應當心心 存念三寶，觀心性空。不得於剎那頃，憶念五欲世事，生邪念心，及與外人言語論議，放逸眠臥，戲笑視色聽聲，著諸塵境，起不善無記 煩惱雜念，乖四安樂行中說。若能如是，心心相續，不離實相，不惜身命，爲一切衆生，行懺悔法。是名三七日中，真實一心精進修也。”

마음(현재의 한 생각)은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마음이 되는 것인가? [현재의 한 생각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서 마음이 되는 것인가? [현재의 한 생각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고 또한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서 마음이 되는 것인가? [현재의 한 생각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도 않고 마음을 원인으로 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되는 것인가? [妄心은] 삼세(三世)에 있는 것인가? 안과 밖에 있는 것인가? 중간에 있는 것인가? 어떤 자취가 있는 것인가? 어떤 곳에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연 가운데서 [망령된] 마음을 구해보지만, 결국에는 [망령된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망령된] 마음은 꿈과 허깨비 같아서 실제적이지 않고, [망령된 마음]은 고요하여 허공과 같으며, [망령된 마음]은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망령된 마음]을 분별할 수 없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a).⁴⁾

위에 소개된 내용은 『중론』의 ‘4구분별’을 수용한 것이다. 『중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空)도 말할 수 없고, 공 아님(非空)도 말할 수 없으며, 공(共: 공이면서 쏘 아님도 말할 수 없음)과 불공(不共: 쏘도 아니고 쏘 아님도 아님)을 말할 수 없다. 다만 가명(假名)으로 말할 따름이다(『중론』, 『대정장』 30, 30b).⁵⁾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천태의 실상론(십승관법 가운데 관부사의경)에서도 제시되는 것이다(『마하지관』, 『대정장』 46, 54c). 이는 법화삼매에서 말하는 내용이 『중론』의 공사상과도 통하는 것이고, 불교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② 앞에 소개한 것처럼, 공을 관조할 때 수행자는 마음이 고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요한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 경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곧 무심(無心)임을 알아서 모든 존재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는 것이다. 이것을 참회의 관점에서 보면, 큰 참회, 장엄의 참회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수행자는 [망령된] 마음이 생사라고도 보지 않는데 어찌 [망령된] 마음이 열반이라고 보겠는가? 이미 관조할 대상[所觀: 망령된 마음]도 보지 않으니 또한 관조하는 쪽[能觀]도 없다. [수행자는] 잡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의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수행자에게]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또한 고요한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고 [그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비록 마음의 모습[心相]과 마음 아닌 것의 모습[非心相]을 얻을 수 없지만, 분명하게 통달한다. 모든 마음은 마음의 존재[心法]가 아니고 모든 것은 허깨비와 같다. 이것을 마음이 무심(無心)임을 관조해서 존재[法]에서 존재[法]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존재[法]에서 해탈하고 멸제(滅諦)의 진리에서 고요한 것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을 큰 참회[大懺悔]라고 하고, 장엄의 참회[莊嚴懺悔]라고 하며, 죄의 모습이 없는 참회[無罪相懺悔]라고도 하고, 심식(心識)을 파괴하는 참회[破壞心識懺悔]라고도 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a).⁶⁾

③ 이처럼 참회를 행한다면,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되어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망상(妄想)과 죄(罪)와 복(福)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 마음[心]이 본래 무심(無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물을 온전히 관조할 수 있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참회를 행하면,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되어서 존재[法]가운데에 머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망상(妄想)과 뒤집힌 생각(顛倒)으로 지어진 죄(罪)와 복(福)의 모든 존재[法]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의 바깥으로 벗어나면 죄(罪)와 복(福)과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이 무심(無心)임을 관조한다면 죄와 복에 주체[主]가 없을 것이고, 죄와 복의 성품이 공(空)하다는 것을 알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 이와 같이 관조할 때, [수행자는] 모든 생사(生死)의 뒤집힌 생각(顛倒)과 삼독(三毒)과 망상(妄想)과 극히 무거운[極重] 악업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처럼 깨뜨린다고] 말한다고 해서 또한 깨뜨리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도 아니다. [수행자의] 마음과 몸이 청정해지고 생각생각 가운데 모든 존재[法]를 비추고 보고 미세한 오음(五陰)과 십팔계(十八界)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권, 954a-b).⁷⁾

4) “云何名正觀? 如菩薩法, 不斷結使, 不住使海, 觀一切法 空如實相, 是名正觀。云何名觀一切法空? 行者當諦觀 現在一念, 妄心隨所緣境, 如此之心, 爲因心故心? 爲不因心故心? 爲亦因心亦不因心故心? 爲非因心非不因心故心? 爲在三世? 爲在內外兩中間? 有何足跡? 在何方所? 如是等種種因緣中, 求心畢竟不可得。心如夢幻不實, 寂然如虛空, 無名無相, 不可分別。”

5) “空則不可說, 非空不可說, 共不共叵說。但以假名說。”

6) “爾時, 行者尚不見 心是生死, 豈見心是涅槃? 既不得所觀, 亦不存能觀。不取不捨, 不倚不著。一切念想不起, 心常寂然, 亦不住寂然。言語道斷, 不可宣說。雖不得心非心相, 而了了通達。一切心非法, 一切皆如幻化, 是名觀心無心, 法不住法, 諸法解脫, 滅諦寂靜。作是懺悔, 名大懺悔, 名莊嚴懺悔, 名無罪相懺悔, 名破壞心識懺悔。”

7) “行此懺悔, 心如流水, 不住法中。所以者何? 一切妄想, 顛倒所作 罪福諸法, 皆從心起, 離心之外, 則無罪福 及一切法。若觀心無心, 則罪福無主; 知罪福性空, 則一切諸法皆空。如是觀時, 能破一切 生死顛倒, 三毒妄想, 極重惡業, 亦無所破。心身清淨, 念念之中, 照了諸法, 不受不著, 微細陰界。”

앞에서 설명한 일(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면, 수행자는 삼매와 상응할 수 있고, 이러한 삼매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을 통달할 수 있다. 보현보살과 부처가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가르침을 말해주는 것을 수행자는 보게 되고, 그래서 수행자는 모든 법문이 한 생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험한다. 이 내용과 관련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인연으로 [수행자는] 삼매와 상응할 수 있고, 삼매의 힘 때문에 보현보살과 시방의 부처님이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보고, 모든 법문이 한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데 [불보살과 법문이 수행자 자신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없다. 비유하면 여의주가 모든 진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보배의 성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아서, 수행자가 심성(心性)이 허공과 같다고 잘 관조하고, 궁극의 청정한 마음 가운데 모든 법문을 보아서 통달하여 장애가 없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수행자가 마음의 실상(實相)을 관조해서 육근(六根)을 참회하고 오욕(五欲)을 끊지 않고 모든 근(根)이 청정해져서 [인식의] 장애의 바깥의 일을 보는 것이라고 이른다. 자세히 말하자면, 『법화경』과 『보현관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b).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실상의 정관’에서는 4구분별로 공(空)을 관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것이 큰 참회, 장엄의 참회 등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참회(수행)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사물을 온전히 관조하고, 모든 가르침에 통달할 수 있다.

3. 법화삼매의 수증론(修證論)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증득하는 모습이 근기에 따라 다르다. 하근기 수행자는 계근(戒根)의 청정함을 얻고, 중근기 수행자는 정근(定根)의 청정함을 얻으며, 상근기 수행자는 혜근(慧根)의 청정함을 얻는다. 그리고 하근기 수행자가 계근(戒根)의 청정함을 얻는 데에도 3단계가 있고, 이는 중근기와 상근기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1) 하근기 수행자가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계근(戒根)의 청정함을 얻는데, 그 가운데 3단계가 있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c).⁹⁾

① 하근기의 하품(下品)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계근(戒根)이 청정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신령스럽고 좋은 꿈을 꾸거나 몸이 가볍고 민첩하고 안색이 깨끗하고 몸에는 기력이 있는 일 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근기] 하품(下品)의 수행자는 여러 가지 신령하고 신이한 좋은 꿈을 꾸거나 모든 인식기관이 밝고 청정해진 것을 느끼거나 사대(四大)가 가볍고 민첩하며 안색이 깨끗하며 몸에는 기력(氣力)이 있고 위엄과 덕망이 웅장하고 도심(道心)이 씩씩하게 일어나면 이것을 하품(下品)의 계근(戒根)이 점차 청정해짐을 아는 것이라 이른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c).¹⁰⁾

② 하근기의 중품(中品)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중에 여러 종류의 신령스럽고 상서로운 현상(좋은 소리로 칭찬하는 것 등)을 체험한다. 이것도 계근(戒根)이 청정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천태지지는 해석한다. 이것과 관련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하근기] 중품(中品)의 계근(戒根)이 청정한 모습은 다음과 같다. 21일 가운데 혹은 21일을 모두 채웠을 때에 행도(行道)하거나 좌선 중에 홀연히 여러 종류의 신령스럽고 상서로운 것, 곧 빛나는 청정한 빛깔과 신이하고 묘한 향기와 좋은 소리로 칭찬하는 것 등을 보고 듣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법망경』의 보살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신령하고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나서, 몸과 마음이 기쁘고 가르침의 즐거움을 얻으며 모든 악(惡)의 모습이 없으면, 이것을 중품의 계근(戒根)이 청정한 모습을 아는 것이라 이른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권, 954c).¹¹⁾

③ 하근기의 상품(上品)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동안에 가르침을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몸과 마음이 즐겁고 고요하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속에서 자신이 깨끗한 법복을 입고, 위의(威儀)가 가지런하며, 몸의 모습이 바르고 엄숙한 것을 스스로 본다. 이것이 하근기 상품(上品)의 수행자가 계근(戒根)이 청정해지는 모습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以是因緣，得與三昧相應，三昧力故，即見普賢，及十方佛，摩頂說法，一切法門悉現。一念心中，非一非異，無有障闕，譬如如意寶珠，具足一切珍寶，如是實性，非內非外，行者善觀心性，猶如虛空，於畢竟淨心中，見一切法門，通達無闕，亦復如是。是名行者觀心實相，懺悔六根，不斷五欲，得淨諸根，見障外事。廣說如法華經，普賢觀經中所明。”

9) “下根證相者，所謂三七日中間，或三七日滿，獲得戒根清淨。云何當知？就中亦有三品。”

10) “一者下品行者，若得種種諸靈異好夢，或覺諸根明淨，四大輕利，顏色鮮潔，身有氣力，威德巍巍，道心勇發，是名下品知戒根漸淨相也。”

11) “中品戒根淨相者，於三七日中，若三七日滿，於行道時，若坐禪中，忽見種種靈瑞，所謂光華淨色，異妙香氣，及善聲稱讚，諸如梵網經菩薩戒中說。見如是——靈瑞相已，身心慶悅，得法喜樂，無諸惡相。是名中品知戒根淨相也。”

[하근기] 상품의 계근(戒根)이 청정한 모습은 21일 동안이거나 21일을 모두 채웠을 때에 행도(行道)하거나 좌선하는 경우에 비록 여러 가지 가르침을 증득하지 못하였지만, 몸과 마음이 즐겁고 고요하며 [이처럼] 고요한 마음속에서 자신의 몸에서 계(戒)의 청정한 모습을 스스로 본다. 이른바 자신의 몸이 깨끗한 법복(法服)을 입고, 위의(威儀)가 가지런하며, 몸의 모습이 바르고 엄숙한 것을 본다. 청정한 대중 속에서 선업(善業)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세 가지 계(戒)의 모습(깨끗한 법복을 입고, 위의를 가지런하며, 몸의 모습이 엄숙한 것)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믿는 마음[信心]이 열리어서 마음에서는 가르침의 즐거움[法喜]을 얻으며, 편안하고 즐거워서 두려운 생각이 없다. 선정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등의 하나하나의 여러 선한 업[善業]의 모습을 본다. 이것을 상품의 계근(戒根)이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른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권, 954c).¹²⁾

(2) 중근기 수행자도 법화삼매 수행한 뒤에 정근(定根)의 청정함을 증득하는데 여기에도 3단계가 있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4c).¹³⁾

① 중근기의 하품(下品) 수행자는 욕계의 선정 또는 미지정(未至定), 곧 색계 초선의 예비단계를 체험한다. 또는 중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무량심(四無量心), 곧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증득하기도 하고, 혹은 부처의 상호(相好)를 보고서 착한 마음이 생겨나서 여러 삼매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중근기의] 하품(下品) 수행자는 좌선할 때,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짐을 홀연히 알아서 여러 선정을 일으킨다. 이른바 욕계의 선정[欲界住]이나 미지정(未至定: 색계 초선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에서 몸과 마음이 비고 고요해지며, 몸 가운데 여러 감각이 순서대로 생겨나고, 각관(覺觀: 사물을 헤아리는 마음의 작용)이 분명해지며, 즐거운 한 마음[一心]이 침묵 속에서 고요해진다. 혹 중생을 인연해서 자비희사(慈悲喜捨)를 증득하기도 하고, 혹 다시 부처의 상호를 인연해서 착한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 삼매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등의 여러 선정이 있다. 이것을 하품의 정근(定根)의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른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권, 954c-955a).¹⁴⁾

② 중근기 중품(中品)의 수행자는 호흡을 관찰하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청정하지 못한 36가지 대상을 보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선정에 들어간다. 혹은 직접 몸의 부정한 모습을 보거나 백골을 관조하거나 해서 선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여러 중생을 만나서 사무량심(四無量心), 곧 자비희사(慈悲喜捨)가 생기기도 하며, 부처의 미묘한 지혜와 공덕으로 인해 선정이 생기기도 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중근기] 중품(中品)에서 정근(定根)이 청정한 모습을 아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러 수행자가 좌선할 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코를 통해] 출입하는 호흡의 길고 짧음과 미세함을 알고, 몸 전체의 털 구멍에서 [호흡이] 출입하는 데 장애가 없음을 안다. 이로 인해 [중근기 중품의 수행자는] 몸의 36가지 물(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며, 여러 즐거움을 일으켜서 여러 종류의 선정에 들어간다. 혹은 몸의 안팎의 여러 부정한 모습[不淨]을 보거나 백골이 흩어져 있음을 보거나 혹은 백골의 흰 모습(皎潔)을 보고 분명하게 세간을 멀리하고 떠난다. 이로 인해, 여러 선정이 생긴다. 몸과 마음이 즐겁고 고요하며 삼매의 상태를 유지한다[正受]. 혹은 여러 존재[法]를 인연해서 자비희사(慈悲喜捨)가 생기기도 한다. 혹은 여러 부처의 미묘한 지혜와 여러 가지 공덕을 인연해서 삼매(三昧)가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선정이 생긴다. 이것을 중품의 정근(定根)의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른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a).¹⁵⁾

③ 중근기의 상품(上品)의 수행자는 좌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 그리하여 대상세계가 무상, 고, 공(무아)임을 깨닫는다. 수행자는 삼삼매(三三昧), 곧 공(空), 무상(無常), 무원(無願)삼매와 상응하는 수준이 된다. 이 때 수행자에게 여러 가지 깊은 선정이 생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근기의] 상품(上品)의 정근(定根)이 청정한 모습이다. 수행자가 좌선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다. 마음은 세간의 오음(五陰)과 십이입(十二入)과 십팔계(十八界)의 존재를 인연해서 곧 무상(無常), 고(苦), 공(空)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몸과 느낌과 마음과 가르침[法]이 모두 실체가 아니고, 십이인연(十二因緣)이 빈 것이어서 주체가 없고, 모든 존재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허공처럼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자의 경지가]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과 서로 응하며, [수행자에게] 여러 가지 깊은 선정이 생긴다. [수행자에게] 미묘한 즐거움이 생기고 [수행자

12) “上品戒根淨相者，於三七日中，若三七日滿，於行道及坐禪中，雖不證證種法門，而身心安樂寂靜，於靜心中，自見其身戒淨相。所謂見身著淨法服，威儀齊整，身相端嚴。在清淨衆中，自見善業之相，了了分明，三篇戒相，次第而現，信心開發，心得法喜，安隱快樂，無有怖畏。於定心中，見如是等一諸善業相。是名上品戒根淨相。”

13) “云何當知? 中根行者 得證淨相，所謂 得定根清淨。就中亦有三品。”

14) “下品行者，若於坐禪時，忽覺身心澄靜，發諸禪定。所謂 欲界住及未到地定，身心空寂，身中諸觸，次第而發，覺觀分明，喜樂一心，默然寂靜。或緣衆生，證慈悲喜捨。或復緣佛相好，善心開發，入諸三昧。如是等種種諸定。是名下品定根清淨相也。”

15) “中品知定根清淨相者，有諸行者，於坐禪時，身心安定，覺出入息 長短細微，遍身毛孔出入無闕。因是見身三十六物，了了分明，發諸喜樂，入種種禪定。或見內外身諸不淨，白骨狼籍，或見白骨皎潔，分明厭離世間。因是發諸禪定，身心快樂，寂然正受。或緣諸法，而生慈悲喜捨。或緣諸佛 微妙智慧種種功德，而生三昧。如是等種種諸定開發。是名中品定根清淨相也。”

는] 고요하며 무위(無爲)의 경지에 있으며, 세간을 멀리 벗어나고 모든 중생을 가엽게 여긴다. [수행자에게는] 다시 번뇌도 없고 여러 악함[惡法]도 없다. 이것을 [중근기] 상품(上品)의 정근(定根)의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a).¹⁶⁾

(3) 상근기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고 혜근(慧根)의 청정함을 얻는데 여기에도 3단계가 있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a).¹⁷⁾

① 상근기 하품(下品)의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가운데 삼매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뜬구름과 같고, 그림자와 허깨비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경전의 뜻에 대해 통달하고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상근기] 하품(下品)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다.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21일 동안이나 21일을 채우고서 행도(行道)하거나 좌선하면서 여러 선정에 들었을 때에 홀연히 몸과 마음이 구름과 같고, 그림자, 꿈, 허깨비와 같아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로 인해 깨닫는 마음[覺心]이 안에서 생겨서 지혜가 분명해져서 모든 존재[法]를 잘 알고, 방편의 가르침에 막힘이 없으며, 십이부경(十二部經)을 통달해서 뜻에 따라 해석하고 어려운 질문에도 막힘이 없으며, 가르침을 말함에 다함이 없다. 이것을 하품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a).¹⁸⁾

② 상근기 중품(中品)의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중에 고요한 삼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바른 지혜에 기초해서 보현보살이 여섯 어금니의 흰 꼬끼리를 타고 많은 보살과 함께 있는 것을 선정 중에서 분명하게 본다. 이때 이 수행자는 삼매와 다라니를 얻는다. 이 다라니를 선다라니(旋陀羅尼) 등이라고도 하는데, 부처의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부처가 말한 ‘한 구절’ 속에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매우 뛰어나게 전달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상근기] 중품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다. 이른바 수행자가 행도하거나 좌선하거나 염송하는 중에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허공과 같아서 여러 고요한 선정에 들어간다. [이 수행자가] 바른 지혜로 보현보살이 여섯 어금니의 흰 꼬끼리를 타고서 많은 보살과 함께 하고, 스스로 들고 있는 것을 면전에서 본다.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이 기쁘게 보는 몸으로 그 사람(수행자) 앞에 나타난다. 이 사람(수행자)은 보현보살을 보았기 때문에 곧 삼매와 다라니를 얻는다. 그것을 선다라니(旋陀羅尼)라고 이름하고, 백천만억 선다라니(旋陀羅尼)라고 이름하며, 법음방편(法音方便)의 다라니라고 이름한다(이운허 역, 1990/2015, 377).¹⁹⁾ 다라니는 곧 큰 지혜이다. 이 큰 지혜를 얻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말한 것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막힘이 없이 통달한다. [부처가 말한] 한 구절 가운데 전체의 의미를 통달해서 [그 의미를] 말할 때에 다함이 없다. [그것이] 마치 허공 가운데 바람과 같다.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지혜의 문(門)을 얻는다. 이것을 중품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a-b).²⁰⁾

③ 상근기의 상품(上品)의 수행자는 법화삼매를 수행하는 중에 몸과 마음이 확연히 청정해져서 깊은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수행자는 깨달음의 지혜가 분명하고 마음에 동요함이 없다. 이 수행자는 선정의 상태에서 보현보살과 석가모니 부처 등을 보고, 육근(六根)이 청정해지고 보현보살의 몸이 되어서 부처의 지견을 얻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근기] 상품(上品)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다. 수행자가 행도(行道)하거나 좌선하거나 염송하는 중에 몸과 마음이 확연히 청정해져서 깊은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수행자는] 깨달음의 지혜가 분명하고 마음에 동요함이 없다. [수행자는] 선정 상태에서 보현보살과 석가모니 부처와 다보여래와 분신(分身)의 세존과十方(十方)에 있는 부처를 볼 수 있고, 장애 없는 대다라니를 얻어서 육근(六根)이 청정해짐을 얻으며, 보현보살의 몸으로 부처의 지견(佛知見)을 열어서 보살의 지위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보현관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1995: 115-116, 136-137). 이것을 상품의 혜근(慧根)이 청정한 모습이라고 이름한다(『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 955b).²¹⁾

이상의 내용에서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수행자가 증득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모두 9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근(戒根), 정근(定根), 혜근(慧根)의 단계를 나눌 때 신비한 체험을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9단계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계근, 정근, 혜근의 3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16) “上品定根清淨相者。行者於坐禪中，身心安靜。心緣世間陰入界法，即覺無常苦空。身受心法，悉皆不實，十二因緣 虛假無主，一切諸法 不生不滅，猶如虛空，身心寂然，與空無相無願相應，而生種種諸深禪定，微妙快樂，寂靜無爲，厭離世間，憫念一切，無復蓋覆，及諸惡法。是名上品定根淨相。”

17) “云何當知? 上根行者 得證之相，所謂 慧根清淨故。就中亦有三品。”

18) “下品慧根淨相者。若於三七日中，若三七日滿，若於行坐之中，入諸禪定，忽覺身心如雲，如影夢幻不實。因是覺心內發，智慧分明，了達諸法，方便巧說 無有障闕，通達十二部經，隨義解釋，難問無滯，說法無盡。是名下品慧根淨相也。”

19)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에 나오는 내용이다.

20) “中品慧根淨相者。所謂行者，於行坐誦念之中，身心寂然，猶如虛空，入諸寂定。於正慧中，面見普賢菩薩乘六牙白象，與無量菩薩衆，而自圍遶。以一切衆生所喜見身，現其人前。是人以見普賢菩薩故，即得三昧及陀羅尼。其名曰旋陀羅尼，百千萬億旋陀羅尼，法音方便陀羅尼。陀羅尼者，即是大智慧也。得是大智慧故，諸佛所說一聞，不忘通達無闕，於一句中，通達一切義，說無窮盡，如虛空中風。得如是種種諸智慧門。是名中品慧根淨相也。”

21) “上品慧根淨相者。行者亦於行坐誦念之中，身心豁然清淨，入深禪定，覺慧分明，心不動搖。於禪定中，得見普賢菩薩，釋迦多寶，分身世尊，及十方佛，得無闕大陀羅尼獲，六根清淨，普現色身，開佛知見，入菩薩位。廣說如普賢觀經中。是名上品慧根淨相。”

III. 법화삼매에 대한 현대적 이해

앞에서 법화삼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화삼매를 현대적 관점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적 수행법으로서 법화삼매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으로 법화삼매가 현대적 수행법으로 바뀌기 위해 어떤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지 검토하며, 그다음으로 법화삼매의 명상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1. 현대적 수행법으로서 법화삼매의 가능성

여기서는 현대적 수행법으로서 법화삼매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법화삼매가 고려시대 원묘국사 요세(了世)에 의해 범부를 위한 수행방편문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으로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이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① 이 법화삼매는 고려 무신집권기에 백련사 결사를 이끌었던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63-1245)에 의해 수용되었다. 요세는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수선사 결사에도 참여했지만, 그 뒤에 수선사 결사에서 나와서 백련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요세는 업장(業障)이 두터운 범부를 위한 수행의 방편문으로서 앞에 소개한 ‘법화삼매’를 다시 평가하고, 백련사 결사의 주요수행법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수행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방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는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엘리트층과 일반 민중(글을 모르는 사람들)으로 구분되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중간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간계층에게 과거의 전통적 수행법(간화선 등)은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그렇다고 과거의 대중수행법(염불, 다라니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행법 개발이 요구되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에 소개한 ‘법화삼매’라고 생각한다. ‘법화삼매’에서는 본격적인 수행인 ‘좌선’에 들어가기 전에 9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수행자가 더 쉽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수행법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병욱, 2009: 206-207).

② 그리고 『법화삼매참의』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항목의 수행이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하지관』에서는 『법화삼매참의』에서 제시한 10가지 항목과 수증의 내용을 합해서 10가지 항목으로 다시 정리했다(『마하지관』, 『대정장』 46, 14a). 이는 『법화삼매참의』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항목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화삼매에서 ‘공’을 관조하기 이전의 예비적 단계를 『법화삼매참의』 또는 『마하지관』의 설명에 따를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유연하게 축소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공’을 관조하는 것이고, 이것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제시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천태대사 지의가 10가지 항목을 제시한 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에도 주목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상징성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고, ‘공’을 관조하는 데 그 예비적 단계로서 요구되는 것을 항목의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법화삼매에 대해 현대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이러한 외형적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법화삼매참의』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사람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항목으로 바꾸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법화삼매의 재구성 – 이론적 접근

앞에서 법화삼매가 현대적 수행법으로 변신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법화삼매가 현대적 수행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틱낫한(Thich Nhat Hanh, 1926-2022)의 수행법과 마하시 위빠사나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① 많은 사람이 불교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행이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은 틱낫한의 수행론에 잘 나타난다. 틱낫한은 14가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곧 수행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일반인을 위한 마인드풀니스(수행덕목)로 30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으로 걷기 명상, 법문 듣기, 진리 토론, 차명상 등이 있고, 심지어는 ‘게으름의 날’도 있다. 이는 너무 열심히 수행하면 다른 사람과 부조화를 일으키고 자신의 수행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일주일마다 하루 정도는 어떠한 과제 활동도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지내는 것이다(김은중, 2005: 308-317). 이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수행이 출세간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수행자의 자세에 따라 수행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화삼매에서 열 번째 항목에서 공(空)을 관조하기 전에 여러 예비단계(9단계)를 거치는 것은 수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배운 것이고, 이 방안의 내용은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을 관조하기 좋은 조건에 이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틱낫한의 수행법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현재 한국불교에서 위빠사나가 상당히 보급되었는데, 이처럼 한국에 보급된 위빠사나는 초기불교(상좌부불교)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변형된 것, 곧 현대화하고 대중화한 것이다(조준호, 2004: 156; 이병욱, 2010: 157).

마하시 위빠사나의 경우 기본수련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 곧 누구나 의지를 가지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마하시 위빠사나에서는 좌선할 때에 호흡에 의해 생기는 복부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당신은 아직 주의력과 집중력이 약한 초보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복부의] 움직임과 사라지는 움직임에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관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는 도무지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라.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항상 현재이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지나쳐버린 것을 두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마하시 사야도우, 정동하 옮김, 1995/2003: 79-80).

법화삼매에서는 ‘공’을 관조하기 전에 예비적 단계(9단계)를 거치는 것도 마하시 위빠사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공’을 관조하기 좋은 조건에 이르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의 사례로서 마하시 위빠사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법화삼매의 명상적 의미

앞(2장 3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법화삼매참의』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구분하고 그것을 각각 다시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해서 9단계로 접근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9단계의 접근법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3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것은 하근기에게는 계율의 청정함이 발생하고, 중근기에게는 선정의 청정함이 생기며, 상근기에게는 지혜의 청정함, 곧 ‘공’의 관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명상적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① 앞에서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하근기에게는 계율의 청정함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이 계율을 윤리로 바꾸어서 검토한다. 로저 월시에 따르면, 비윤리적 행동은 즉각적이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가를 불러온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해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과 질투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로 흔들린다. 이러한 정서는 타인에게는 파괴적일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될 수 있다.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그 분노의 불길 속에서 타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이처럼, 비윤리적 행동은 즉각적이고 정서적 피해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불친절하고 비윤리적 행동의 해로운 대가에 대해 깨닫게 되면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도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로저월시 지음, 김명권·문일경·백지연 옮김, 2007/2010: 199, 202).

이처럼 비윤리적 행동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을 안다면 윤리적 행동을 할 것이고, 이것이 법화삼매에서 제시하는 계율의 청정함과 서로 부합한다.

② 앞에서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중근기에게는 선정의 청정함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로저 월시는 선정, 곧 정신집중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마음은 거울과 같은 탁월한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같이 바람직한 자질을 일깨울 수 있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입에 무엇을 넣느냐, 곧 무엇을 먹느냐 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음의 양식은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력을 수련하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책, 친구 등을 주의 깊게 선택하면 우리는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로저월시 지음, 김명권·문일경·백지연 옮김, 2007/2010: 255).

따라서 법화삼매를 수행한 중근기 수행자가 선정의 청정함을 얻을 때, 그 수행자는 마음의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③ 앞에서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상근기의 수행자는 지혜의 청정함, 곧 ‘공’을 관조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였다. 로저 월시에 따르면, 명

상을 통해 정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무의식적 역동(力動: 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를 반(半)의식적인 기계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무의식적 역동에 대해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고, 인식되지 않는 사고와 신념에 의해 좌우되며, 의식되지 않는 심리적 역동(力動)의 포로로 남게 된다(로저월시 지음, 김명권·문일경·백지연 옮김, 2007/2010: 295-296).

그렇다면, 법화삼매를 수행한 상근기의 수행자가 지혜의 청정함을 얻을 때, 자신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역동(力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법화삼매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법화삼매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1절),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 가운데 열 번째 항목 ‘실상의 정관(正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 내용은 ‘4구분별’로 ‘공’을 파악하고, 그리고 참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큰 참회, 장엄의 참회 등으로 부르며, 또 이렇게 참회를 하면 사물을 온전히 관조하고, 모든 가르침에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2절). 그리고 법화삼매를 수행하면 하근기 수행자는 계율의 청정함을 얻고, 중근기 수행자는 선정의 청정함을 얻으며, 상근기 수행자는 지혜의 청정함, 곧 ‘공’의 관조를 얻는다(3절).

3장에서는 법화삼매에 대해 현대적 관점으로 조명하였다. 먼저 현대적 수행법으로서 법화삼매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려 무신집권기 원묘국사 요세는 백련사 결사를 이끌면서 주요 수행법의 하나로서 법화삼매를 수용하였다. 그것은 업장이 두터운 중생을 위한 방편의 수행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에는 더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엘리트층과 글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으로 구분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중간계층이 등장하고, 이 중간계층에 부합하는 수행법으로서 법화삼매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법화삼매에서 제시된 10가지 항목은 바꿀 수 없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천태지의의 저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화삼매참의』에서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얻는 경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모두 11가지 항목), 『마하지관』에서는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얻은 경지에 관한 것이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에 포함되었다(모두 10가지 항목). 이는 법화삼매의 10가지 항목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법화삼매를 현대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10가지 항목이라는 외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1절).

그러면 법화삼매를 현대적으로 조명한다고 할 때 현대적 수행법으로서 채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틱낫한 수행법과 마하시 위빠사나를 살펴보았다. 틱낫한의 수행법은 일상생활의 곧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삼매를 현대적으로 조명할 때 ‘공’에 이르기 위한 예비적 실천으로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마하시 위빠사나의 경우에는 기본수련에서 누구나 의지를 가지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것을 법화삼매의 현대적 조망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에 이르기 위한 예비적 실천으로서 누구나 의지를 가지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2절).

그리고 법화삼매의 명상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하근기 수행자는 계율의 청정함을 얻는데, 여기서는 계율을 윤리로 바꾸어서 이해한다. 명상의 관점에서 볼 때, 비윤리적 행동은 분노와 두려움과 질투와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로 자기자신을 동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윤리적 행동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안다면 윤리적 실천을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은 계율의 청정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중근기 수행자는 선정의 청정함을 얻는데, 명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혜로운 주의력을 수련하면 마음의 건강함을 얻는 것과 서로 연결된다. 마음은 거울과 같은 탁월한 반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좋은 대상에 집중한다면 그만큼 마음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

또 법화삼매를 수행한 뒤에 상근기 수행자는 지혜의 청정함, 곧 ‘공’의 관조에 이르는데, 이러한 것을 명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좌우하는 무의식적 역동(力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화삼매는 천태의 4종류 삼매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지만, 실상의 정관(正觀), 곧 ‘공’을 관조하기 위해 제시된 9가지 항목의 예비적 수련에 대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현대에도 매우 유용한 수행법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수행자는 자신을 좀먹는 비윤리적 행동에서 멀어지고, 집중력이 길러져서 마음의 건강함을 기를 수 있으며, 통찰의 힘이 예리해져서 자신을 좌우하는 무의식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법화삼매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법화삼매는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대목은 10가지 항목의 마지막에 있는 실상(實相)의 정관(正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상의 정관은 공(空)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참회의 관점에서는 큰 참회, 장엄의 참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화삼매는 10가지 항목은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9가지 항목은 열 번째 항목인 실상의 정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가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을 위한 수행법으로 법화삼매를 재구성하고자 할 때, 틱낫한의 수행법과 마하시 위빠사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틱낫한의 수행법에서는 일상생활이 수행이라는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고, 마하시 위빠사나에서는 누구나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화삼매를 명상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것은 윤리적 실천, 마음의 건강함, 무의식적 역동에서 벗어남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어

실상(實相)의 정관(正觀), 틱낫한의 수행법, 마하시 위빠사나, 마음의 건강함, 무의식적 역동에서 벗어남.

참고문헌

- 『법화삼매참의』 (『대정장』 46권)
 『마하지관』 (『대정장』 46권)
 『중론』 (『대정장』 30권)
 『法華經・結三昧經』 (1995), 충북 단양군: 천태종 구인사.
 이운허 역(1990/2015), 『묘법연화경』, 서울: 동국역경원.
 김세운 역(2007), 『천태대사제참법』, 서울: 대각.
 학담 편저(2007), 『법화삼매의 길』, 서울: 큰수레.
 마하시 사야도우 지음(1995/2003), 정동하 옮김,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 서울: 경서원.
 로저월시 지음(2007/2010), 김명권 ● 문일경 ● 백지연 옮김, 『7가지 행복명상법』, 서울: 김영사.
 김은중(2005), 「틱낫한의 플럼빌리지 선수행 고찰」, 『불교평론』 25호.
 나지용(2014), 「법화삼매 수증과 전승의 연구」, 금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운(1996), 「법화삼매의 사상체계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운(2012), 「동북아 삼국의 법화삼매 행법체계 연구」, 『동양철학연구』 70집, 동양철학연구회.
 이병욱(2009), 「천태지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승가』 25호, 중앙승가대학교.
 이병욱(2010),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비교」, 『불교평론』 44호.
 조준호(2004), 「위빠사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불교평론』 19호.
 차차석(2008), 「천태찬 『법화삼매참의』의 정토적 특성 탐구」, 『보조사상』 29집, 보조사상연구원.
 차차석(2021), 「천태 찬 『법화삼매참의』의 구성과 문화사적 의의」, 『불교문예연구』 17집,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
 한지연(2017), 「『법화삼매참의』의 특징적 내용과 그 의의」, 『불교문예연구』 8집,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